

배포 일시	2022. 11. 6.(일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이인원 (044-201-460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오봉역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.5(토) 오후 8시 20분경 경부일반선 오봉역에서 차량정리*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, 발생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했다며,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.

* 열차를 편성하기 위해서 차량을 연결, 분리, 교환, 또는 이동하는 작업

□ 해외출장차 사우디에 체류 중인 원희룡 장관은 “얼마 전 코레일 등 철도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당혹스럽다” 라며, “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” 을 지시하였다.

○ 또한, “경의중앙선 중랑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(7.13), 일산선 정발산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(9.30)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” 라며, “사고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” 을 지시하였다.

□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, 철도안전감독관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, 사고 당시 차량정리 작업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, 작업자~기관사 간 업무 협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,

○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정리를 포함하여 관제,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 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, 장례 등 후속절차 지원에 정성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 사고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.

- 한편, 11.6(일)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“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고 안전습관이 생활이 되도록 쇄신하여야 한다” 고 강조하였다.